

 관계부처합동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1. 9. 15.(수) 09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이차웅 (044-215-2810)	담당자	김태순 사무관 (tskim07@korea.kr)
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(042-202-7254)		이지혜 사무관 (ljhye@korea.kr)
			유병현 사무관 (a3338@korea.kr)
			허균 주무관 (huhkyun@korea.kr)

'21.8월 고용동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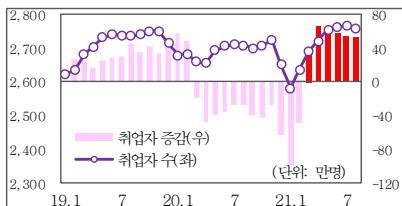
요 약

◇ 8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+51.8만명 늘어나며 5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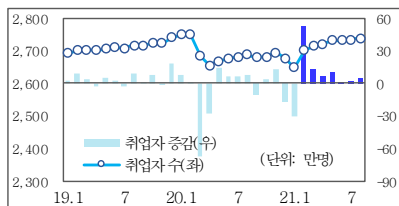
- 전월대비 취업자수는 +4.8만명 증가하여 7개월 연속 개선
- 코로나19 위기 직전('20.2월) 대비 99.6% 수준까지 회복

※ 8월 고용지표가 기발표된 미국, 캐나다 취업자수는 '20.2월 대비 각각 96.5%, 99.2% 수준

취업자 및 증감 추이(전년동월비)



계절조정 취업자 및 증감 추이(전월비)



◇ 8월 고용은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지속

- ① 4차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, 대면서비스 비중 높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확산기에 비해 크지 않았음
- ②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과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취약부문의 어려움 보완
- ③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8월에도 청년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졌음
- ④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5개월 연속 +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증가

◇ 4차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9월에도 계속되는 만큼, 코로나 취약업종·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가운데 그간의 고용회복세가 유지·확대되도록 정책지원을 지속

- ① 코로나 피해부문 회복 지원 등을 위한 3중 패키지(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, 상생국민지원금, 상생소비지원금)를 신속 집행
- ② 추정 일자리 사업(1차 25.2만개, 2차 14.2만개) 집행에 속도를 내고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도 지속
- ③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
- ④ 제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「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」과 「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」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

1 주요 동향

총괄

- 8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+51.8만명 늘어나며 5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

*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2)△47.3 (3)31.4 (4)65.2 (5)61.9 (6)58.2 (7)54.2 (8)51.8

- 전월대비 취업자수는 +4.8만명 증가하여 7개월 연속 개선

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1.3)12.8 (4)6.8 (5)10.1 (6)1.8 (7)2.0 (8)4.8

- 고용률·경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

*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21.2) △1.4 (3) 0.3 (4) 1.0 (5) 1.0 (6) 0.9 (7) 0.8 (8) 0.8

* 경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'21.2) △1.0 (3) 0.3 (4) 1.0 (5) 0.7 (6) 0.5 (7) 0.3 (8) 0.4

- 실업자수는 감소하고 실업률 하락

* 실업자(만명) : ('21.3)121.5 (4)114.7 (5)114.8 (6)109.3 (7)92.0 (8)74.4

-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3.6 (4)△2.5 (5)△13.0 (6)△13.6 (7)△21.8 (8)△12.0

* 실업률(%) : ('21.2)4.9 (3)4.3 (4)4.0 (5)4.0 (6)3.8 (7)3.2 (8)2.6<전년비 △0.5%p>

업종별 취업자

- 제조업 고용은 감소, 서비스업은 6개월 연속 증가

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3)△1.1 (4)0.9 (5)1.9 (6)△1.0 (7)0.6 (8)△7.6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 26.2 (4)50.7 (5)47.7 (6) 44.2 (7) 44.0 (8)43.6

-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, 공공 일자리 중심 +43.6만명 증가

* 전문·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 6.4 (5) 5.8 (6) 8.7 (7) 5.7 (8) 5.5

* 정보통신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 4.1 (5) 2.9 (6) 5.7 (7) 4.6 (8) 7.5

* 운수·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 10.7 (5) 9.1 (6) 8.9 (7) 12.1 (8) 10.7

*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 8.0 (5) 8.3 (6) 8.7 (7) 9.1 (8) 4.7

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22.4 (5)24.1 (6)20.8 (7)23.7 (8)24.3

- 농림어업 취업자는 3개월 연속 증가, 건설업은 증가세 지속

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△0.3 (5)△0.3 (6) 1.6 (7) 1.2 (8) 3.7

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 14.1 (5) 13.2 (6) 14.0 (7) 9.2 (8) 12.3

연령·지위·취업시간별 취업자

- 청년·50대·40대·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, 30대는 감소

* 21.7→8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청년)18.4 → 14.3
(30대)△12.2 → △8.8 (40대)1.1 → 1.1 (50대)10.9 → 7.6 (60세 이상)36.1 → 37.7

- 임금 근로자는 증가(+54.7만명), 비임금 근로자는 감소(△2.9만명)

* '21.7→8월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
(상용직) 36.1 → 32.4 (임시직) 35.2 → 31.2 (일용직) △17.0 → △8.9
(고용有 자영업자)△7.1→△6.1 (고용無 자영업자) 8.7→5.6 (무급)△1.6→△2.3

- 일시휴직자 감소(△22.1만명), 단시간(1~17시간) 근로자는 +6.8만명 증가, 전일제(주당 36시간 이상) 근로자는 △338.7만명 감소

* 일시휴직자(만명) : ('21.3)42.7 (4)40.3 (5)42.2 (6)40.3 (7)50.6 (8)62.5

-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△118.0 (4)△108.2 (5)△59.8 (6)△32.6 (7)△17.9 (8)△22.1

* 취업시간별(전년비, 만명) : (1~17시간)6.8 (18~35시간)405.8 (36시간 이상)△338.7

※ '21.8월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중 광복절 대체휴일(8.16일)로 전년에 비해 근무일수 1일 감소 → 주당 취업시간 감소

청년(15~29세) 고용

- 청년층 취업자수는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

*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1.3) 14.8 (4) 17.9 (5) 13.8 (6) 20.9 (7) 18.4 (8) 14.3

* 청년층 인 구(전년비, 만명): ('21.3)△13.6 (4)△12.9 (5)△13.6 (6)△13.4 (7)△13.7 (8)△14.4

-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·확장실업률은 하락

* 청년 고용률('20.8→'21.8, %) : 42.9 → 45.2 <+2.3%p>

* 청년 실업률('20.8→'21.8, %) : 7.7 → 5.8 <△1.9%p>

청년 확장실업률('20.8→'21.8, %) : 24.9 → 21.7 <△3.2%p>

- 청년 비경황인구는 취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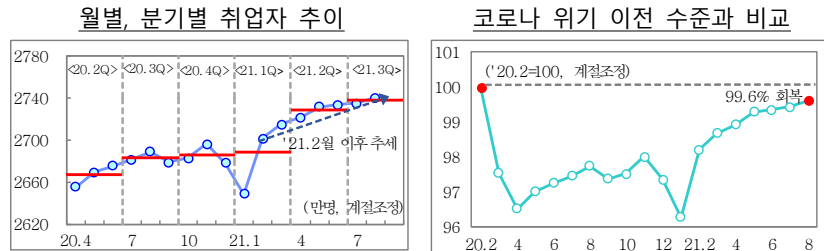
* 청년 비경황인구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△35.9 (5)△25.0 (6)△27.9 (7)△22.2 (8)△21.3

2 평가

□ 8월 고용시장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+51.8만명 늘어나며 5개월 연속 +50만명 이상 증가

○ 전월대비 취업자수(계절조정)는 7개월 연속 회복세가 지속되며 코로나19 위기 직전('20.2월) 대비 99.6% 수준까지 회복

※ 8월 고용지표가 기발표된 미국, 캐나다 취업자수는 '20.2월 대비 각각 96.5%, 99.2% 수준



□ 8월 고용은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견조한 회복 흐름이 지속

❶ 4차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, 대면서비스 비중 높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확산기에 비해 크지 않았음

- 도소매·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로는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지난달 감소후 증가 전환

* '21.7~8월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도소매)△18.6 → △11.3 (숙박음식)△1.2 → △3.8 (전월비, 만명) : (도소매) △1.6 → 2.0 (숙박음식)△4.1 → 0.4

- 지난 코로나 확산기에 비해 고용 충격의 크기가 축소

* 도소매+숙박음식업 증감(전월비 합계, 만명) : (1차, '20.3~4월)△21.2 (2차, '20.9)△8.8 (3차, '20.12~'21.1)△27.4 (4차, '21.7~8)△3.3

대면서비스 관련 업종 전월비 증감(만명)

확산기	기간	도·소매	숙박·음식	교육	예술·여가	합계
1차	'20.3월	△2.3	△11.2	△8.2	△2.8	△24.6
	4월	0.4	△8.0	△2.2	△4.2	△13.9
2차	9월	△2.5	△6.3	△1.0	0.1	△9.7
3차	12월	△4.8	△12.9	0.3	△2.1	△19.6
	'21.1월	△3.6	△6.0	1.7	△1.9	△9.9
4차	7월	△1.6	△4.1	0.6	△0.2	△5.3
	8월	2.0	0.4	1.4	△0.8	3.0

❷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과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취약부문의 어려움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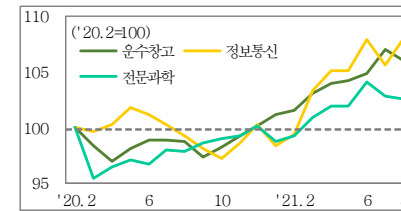
- 전문·과학기술, 정보통신, 운수창고업 등 비대면·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은 3개월 연속 +20만명 이상 증가하고 증가폭도 확대

* 전문과학+정보통신+운수창고업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5)17.8 (6)23.3 (7)22.4 (8)23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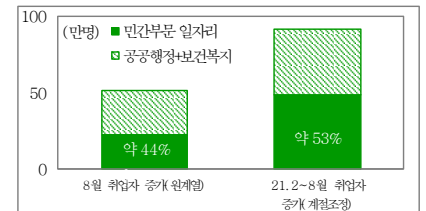
- 추정 일자리 사업 등이 집행되며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 관련 업종도 지속 증가

* 공공행정+보건복지업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21.4)30.4 (5)32.4 (6)29.5 (7)32.8 (8)29.0

비대면·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추이



공공-민간 일자리 기여



- 서비스업은 +43.6만명 증가했으나 2/4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제조업은 자동차업계 생산차질 등 영향으로 상당폭 감소

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 26.2 (4)50.7 (5)47.7 (6)44.2 (7)44.0 (8)43.6

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△1.1 (4)0.9 (5)1.9 (6)△1.0 (7)0.6 (8)△7.6
-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영향으로 일부 자동차 공장 감산, 휴업 등 실시

❸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8월에도 청년 고용 회복세가 두드러졌음

* '21.6~7~8월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 : (청년)3.1 → 2.8 → 2.3 (30대)0.0 → △0.1 → 0.3 (40대)0.8 → 0.8 → 0.9 (50대)1.0 → 1.4 → 0.9 (60세 이상)0.8 → 0.6 → 0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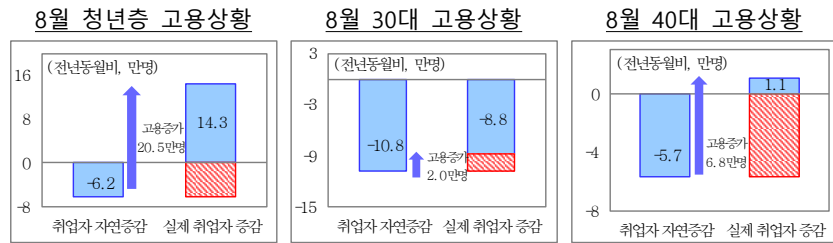
- 청년층 취업자가 6개월 연속 +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, 40대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

*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14.8 (4)17.9 (5)13.8 (6)20.9 (7)18.4 (8)14.3

* 40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'21.3)△8.5 (4)△1.2 (5)△0.6 (6)1.2 (7)1.1 (8)1.1

* '21.7~8월 증감(전년비, %p) : (청년 실업률)△2.5 → △1.9 (청년 확장실업률)△2.9 → △3.2

- 30대의 경우 인구감소(△14.3만명)에 따른 자연감소분(△10.8만명) 보다는 취업자수 감소폭(△8.8만명)은 작은 수준 → 실질적인 고용이 증가하여 고용률은 증가 전환(7월 △0.1%p → 8월 +0.3%p)



* 취업자 자연증감 = 인구증감 × 중기('17~'19년) 고용률 평균

④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5개월 연속 +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증가

- * '21.6→7→8월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
: (상용) 32.1 → 36.1 → 32.4 (고용無 자영업자) 11.3 → 8.7 → 5.6
- 한편,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, 일용직 등 코로나19 고용 취약 계층의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(전월비 고용 개선)
- * '21.7→8월 취업자(전년비, 만명) : (고용有 자영업) △7.1 → △6.1 (일용직) △17.0 → △8.9
(전월비, 만명) : (고용有 자영업) 0.1 → 2.1 (일용직) △3.1 → 6.8

3 대응방향

- 4차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9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 취약업종·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가운데 그간의 고용 회복세가 유지·확대되도록 정책지원을 지속

① 코로나 피해부문 회복 지원 등을 위한 3종 패키지(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, 상생국민지원금, 상생소비지원금)를 신속 집행

-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,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9월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상생소비지원금도 10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

② 추경 일자리 사업(1차 25.2만개, 2차 14.2만개) 집행에 속도를 내고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*도 지속

- *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('20.12)예술인 → ('21.7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→ ('22.1) 플랫폼 종사자
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[재산요건(3~4억원 이하), 소득요건(50%~60% 이하) 완화]

③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

- 민관 합동으로 청년 고용창출* 및 인력양성**을 지원하는 '청년희망 ON 프로젝트' 등을 적극 추진

- * (삼성)3년간 청년 일자리 3만개 신규 창출, (KT)22년부터 3년간 1.2만명 신규 채용
- ** 기업이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+ 정부는 운영비 등 비용지원

④ 제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「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」과 「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」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

- * 「선제적 기업·노동전환 지원단」 구성·운영, 금년중 「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추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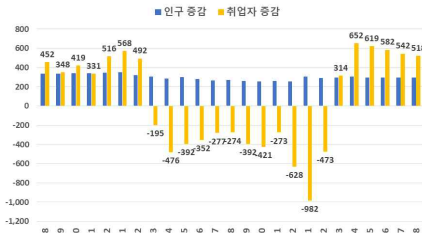
참 고

2021년 8월 고용동향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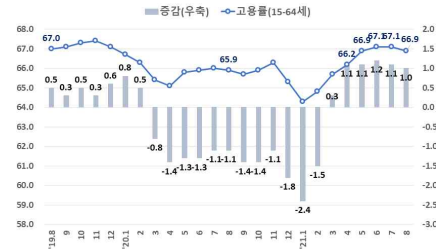
① (총괄) 취업자 증가,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 지속

- 6개월 연속 고용률(15~64세) 상승(66.9%, +1.0%p) 및 취업자수(15세 이상, 2,760.3만명, +51.8만명) 증가, 계절조정 취업자수 7개월 연속 증가
 - * 취업자 증감(만명): ('21.2) -47.3 (3) 31.4 (4) 65.2 (5) 61.9 (6) 58.2 (7) 54.2 **(8) 51.8**
 - * 계절조정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21.2) 53.2 (3) 12.8 (4) 6.8 (5) 10.1 (6) 1.8 (7) 2.0 **(8) 4.8**
 - * 일시휴직자 증감(만명): ('21.2) 8.0 (3) -118.0 (4) -108.2 (5) -59.8 (6) -32.6 (7) -17.9 **(8) -22.1**
- 실업자 감소(74.4만명, -12.0만명) 및 실업률 하락(2.6%, -0.5%p, 8월 기준 최저) 지속, 비경합인구 감소폭은 확대(1,675.8만명, -10.6만명)
 - * 실업자 증감(만명): ('21.2) 20.1 (3) 3.6 (4) -2.5 (5) -13.0 (6) -13.6 (7) -21.8 **(8) -12.0**
 - * 비경합인구 증감(만명): ('21.2) 56.2 (3) -5.4 (4) -32.4 (5) -19.6 (6) -15.4 (7) -3.0 **(8) -10.6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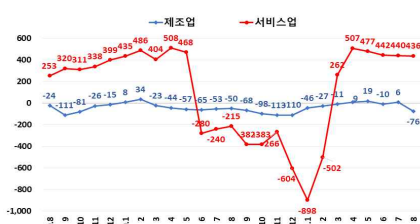
< 인구 및 취업자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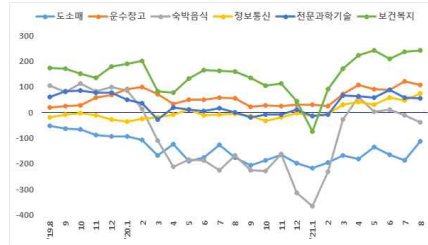
< 고용률(15~64세) 및 증감(%p) >



< 제조업, 서비스업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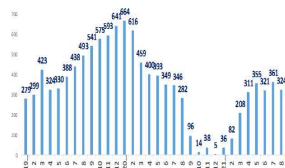
< 산업별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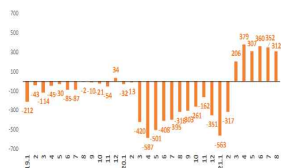
④ (종사상지위) 상용직(+32.4만)과 임시직(+31.2만)에서 증가폭 축소, 일용직과 (고용원 있는)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감소세는 지속

- (상용직) 5개월 연속 증가폭 30만명 상회하며 증가 추세 지속
 - * 상용직 증감(만명): ('21.2) 8.2 (3) 20.8 (4) 31.1 (5) 35.5 (6) 32.1 (7) 36.1 **(8) 32.4**
- (임시·일용) 그간 충격이 컸던 임시직은 6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폭 축소, 일용직 감소폭은 전월보다 축소
 - * 임시일용직 증감(만명): ('21.2) -39.7 (3) 24.7 (4) 41.7 (5) 28.7 (6) 24.6 (7) 18.2 **(8) 22.3**
 - ↳ 임시직 증감(만명): ('21.2) -31.7 (3) 20.6 (4) 37.9 (5) 30.7 (6) 36.0 (7) 35.2 **(8) 31.2**
 - ↳ 일용직 증감(만명): ('21.2) -8.0 (3) 4.1 (4) 3.8 (5) -2.0 (6) -11.4 (7) -17.0 **(8) -8.9**
- (자영업자 등) 코로나19 장기화, 비대면·디지털 경제 이행으로 '고용원 있는 자영업자' 감소세 지속, '고용원 없는 자영업자'는 증가폭 축소
 - * 자영업자 증감(만명): ('21.2) -11.1 (3) -8.1 (4) -3.8 (5) -1.4 (6) 2.9 (7) 1.6 **(8) -0.5**
 - ↳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(만명): ('21.2) -15.6 (3) -9.4 (4) -6.5 (5) -6.7 (6) -8.4 (7) -7.1 **(8) -6.1**
 - ↳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(만명): ('21.2) 4.5 (3) 1.3 (4) 2.7 (5) 5.3 (6) 11.3 (7) 8.7 **(8) 5.6**
 - ↳ 무급가족종사자(만명): ('21.2) -4.7 (3) -6.0 (4) -3.9 (5) -1.0 (6) -1.5 (7) -1.6 **(8) -2.3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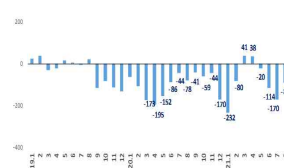
< 상용직 증감(천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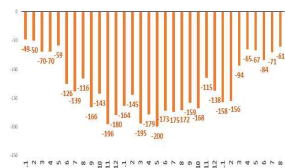
< 임시직 증감(천명) >



< 일용직 증감(천명) >



<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(천명) >



<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감(천명) >



< 무급가족종사자 증감(천명) >

